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 국민의힘

2022

왜 윤석열인가?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역동적 성장과 따뜻한 복지’

아이 말기고 싶은 대선 후보 1위

윤석열의 육아정책

(조선의과뉴스데일리 조사기관 PNR 조사일시 22128~29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차기정부 한반도전략

‘한국 핵심안보, 타협 대상 아냐’

2 윤석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2	국민의힘	윤석열	남	1960. 12. 18 (만 61세)	정치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 (법학석사)	(前) 제43대 검찰총장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후보자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7,745,343	846,328	6,899,015	고지거부	병종 전시근로역 (질병:부동시)	-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304,81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82,178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222,632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4. 소명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원칙과 뜻심으로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부름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로 국민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일을 바꿀 대통령 윤석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

Q. 사법시험에 늦깎이 합격하셨는데요, 포기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실패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 일에 있어서 치열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성공시키는 건 자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공정과 상식에 따라 제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낼 확신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사람

Q.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다가올 후폭풍이 두렵진 않으셨나요?

제가 정말 두려웠던 건 국민이었습니다. 사람과 권력에 충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국민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특혜와 내로남불, 불공정 등에 실망한 국민이 저를 불러내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꼭 정권교체를 이루어 대한민국을 다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필 사람

Q. 검사시절의 엄격한 모습과 달리 요즘 '석열이행'으로 불리며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권력엔 엄격하고, 국민에게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옆에서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며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오로지 국민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혼자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응원으로

우리 모두는 성장합니다.

제가 가장 힘든 순간

국민께서 저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국민이 오늘의 윤석열을 키워주셨습니다.

윤석열은 계파도, 정치공학도 없습니다.

내일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숙명으로 받들겠습니다.



두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안 할 것’에 대한 질문에
혼자 식사하지 않을 것과 뒤에 숨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한 윤석열 후보

나이, 가치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한 끼 밥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다면 점심도 두 끼, 저녁도 두 끼를 먹겠다 말하는 그에게
‘소통’은 첫 번째로 지키고 싶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가 바뀌 나가려는 대한민국 이야기를 들어본다.



윤석열, 내일을 묻고 답하다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

지난 5년, 경제가 국민 마음을 참 답답하게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하락했고,
고용시장은 암흑기였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 그 양쪽에서 공정성
이 확보된다면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중심의 성장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옮겨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유와 창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잠재 경제성장률이 올라가
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가 필요합니다. 디지털경제 토대를
탄탄하게 하고 신산업육성과 기술발전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이 중요합니다. 과감한 R&D 재정투자로 도전적인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구조개혁도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의 혁신이 받쳐줘야 합니다. 현재의
지식습득형 교육을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으로 바꾸
겠습니다.

규제 풀고, 공급 늘려 부동산문제 풀어봅시다

현 정권이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겠죠. 집 없는 사람은 폭등하는 집값에
절망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잠 못 이루고요. ‘벼락
거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국민이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
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문제 해법, 어떻게 접근하실지 궁금합니다.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대출을 막아 놓으니 목돈 마련이 어
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박탈감이 심한 거죠. 대출 규
제를 완화하고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도 필요합니
다. 공급이 늘도록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를 완화하고요. 꽉
막혀 있는 것들을 풀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부동산 세금 완화도 말하셨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 폭등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생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늘었죠. 집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늘었고요.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
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부담을 낮춰드리고, 종합부동산세
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살 만한 세상이라고 느꼈으면

한 설문조사에서 ‘갑자기 아이를
부탁해야 한다면 대선후보 중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겠는가’라는 질문에 1위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원표:뉴데일리, 조사기관:PNR, 조사일시:22128~29,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잘 돌볼 자신은 없는데 잘 놀아 줄 자신은 있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은 힘들겠죠. 아이 돌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
요.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아정책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크다’는 말, 예전엔 가능했는데 요즘
은 말이 안 되죠. 워킹맘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 가장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국가가 키
운다는 약속을 엄마 아빠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도입,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
식 지원 등 육아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
겠습니다.

차에서 생활한다는 청년 손님이 생각났어요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각계각층의 분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 주셨잖아요.
가장 기억나는 손님은 누구였나요?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보장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밥집에 방문했던 모든 손님들의 이야기가 다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집을 얻기 힘들어 차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청년 손님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바로 이 점이 청년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을 그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단순 일회성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진짜 청년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죠.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거 문제 또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바뀌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는 청년에게 희망이 없으면 이 사회는 죽은 사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혜, 내로남불, 불공정 문제 등 청년들이 실망했던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입시비리 엄단은 물론 취업비리를 근절하고 다양한 교육훈련과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분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코로나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분들에게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정책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과학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코로나 극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종식이란 말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호프집 같은 데서 촌촌히 앉아 마스크 벗고 국민과 생맥주 한잔하면서 마음껏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국가의 역할

윤석열표 복지가 궁금합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의 삶부터 보살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두텁하게 보호하고, 서민·중산층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다시 성장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건가요?

가족에 대한 간병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선 간병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희생시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정부가 되서는 안돼

안보전략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경제제재에 굴복해 ‘사드 3불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희생하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겁니다. 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도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대응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국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은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첨단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사이버, 우주,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폭 축소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복원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한미일 3자 안보 공조 활성화와 한일관계 정상화도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오로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만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북대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지원과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의 것을 되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공정의 길로 직진합니다.

윤석열의 내일을 바꾸는 10대 약속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코로나 피해 손실 보상 및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 금융 및 세제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



2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가치있는 일자리 창출
-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세대, 계층,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규제개혁과 글로벌 첨단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춤추고 두툼한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3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정과 상식의 나라]

- 입시비리 엄단 및 취업비리 근절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
-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취득세 부담 완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 제공
- 공수처 정상화



4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및 양육비 지급 이행 실효성 확대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 및 보호체계 정비,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나라' 실현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기준 개선

6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로 앞서가는 나라

[미래를 위한 알찬 교육]

- 초·중고 AI 교육 강화, AI 보조교사 도입
- 미래산업 10대 학문분야 세계 10위권으로 육성

[과학기술 선도국가]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신설
- 미래 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 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및 육성
-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및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전환추진 및 소외계층 디지털 포용확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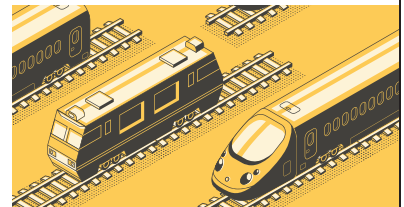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및 기술강국 실현
- 기후위기 재난 대응체계 정비 및 글로벌 대응체계 구축
- 실천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및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8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 강화
-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 시설물 안전 및 품질 강화
- 유해물질, 위험물 체계적 관리
-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권력형 성범죄 근절
- 촉법소년 및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



9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
- 영호남·동서연결교통망 구축
- 수도권 광역교통망(2기 GTX 등)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10

정부혁신

[대통령실 혁신]

- 대통령실 이전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 대통령 비서실 축소(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폐지)
-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정부혁신]

-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





“ 압도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

지난 5년,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도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하고 대한민국은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만의 권력의 시간을 멈추고
이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한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윤석열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완성해 주십시오.

2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국민의힘